

“우정·불륜 얽힌 감정표현 힘들었죠”

드라마 ‘빨강풍선’ 서지혜·홍수현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만난 TV조선 드라마 ‘빨강풍선’의 배우 서지혜는 “연기하면서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 일부러 귀여운 강아지 영상들을 찾아보며 일상의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웃으며 말했다.

서지혜가 연기한 조은강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굴할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캐릭터다. 이십년지기 친구 한바다(홍수현)의 심부름을 해주며 그의 가족들까지 살뜰하게 챙기지만, 내면을 굶어먹는 피해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결국 뼈뿔어린 방식으로 욕망을 표출한다.

마음을 품고 있던 한바다의 남편 고치원(이상우)을 유혹해 불륜을 저지르고, 한바다의 보석 디자인을 몰래 유출하기까지 한다.

서지혜는 이런 조은강을 두고 “착하거나 나쁜 여자로 굳이 정의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시기, 질투 등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겉으로 끄집어내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단순한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묘사하고 싶었어요.”

불륜 커플만 4쌍이 등장하는 ‘빨강풍선’은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지만, 극본을 맡은 문영남 작가 특유의 ‘과장된 리얼리티’ 작법이 잘 어우러지면서 보는 재미를 살렸다는 평을 받는다.

서지혜는 “문 작가님의 드라마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유를 알겠더라”면서 “사소한 부분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대본을 써주셨다”고 강조했다.

“은강이는 속에 품은 나쁜 마음을 야금야금 드러내야 하니까 수위 조절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극이 절정으로 치닫는 장면은 불륜 사실을 알게



조은강 역 서지혜

홍수현 출신 욕망 품은 캐릭터 인간 내면의 시기·질투 표현 노력

된 한바다(홍수현 분)가 둘에게 악에 반친 독설을 퍼붓는 장면이다.

한바다의 독백만으로 약 12분에 달하는 이 장면의 대본은 A4 용지로 6장. 긴 대사를 NG 없이 단 한번에 소화해냈다는 홍수현은 당시 현장에서 반응이 어땠냐고 묻자 “순백 쳐주셨어요”라고 답하며 수줍게 웃어 보였다.

홍수현은 “20년이 넘는 연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긴 대사는 해본 적 없었다”며 “이걸 해내고 나니까 다른 것도 쉽게 소화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긴 대사를 외우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게 힘들었어요. 쏟아지는 감정을 절제하는 연습을 반복했죠.”

드라마에서 홍수현은 잘나가는 보석 디자이너



한바다 역 홍수현

금수저 출신으로 어디서나 당당 12분 독백 소화한 씬 기억에 남아

한바다를 연기했다. 부족한 없이 지라서 배뿔기도 잘하지만,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이 ‘홍수저’인 단짝 친구 조은강의 열등감을 자극한다.

홍수현은 “한바다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조은강을 친구로서 좋아하고 아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이 안 좋으면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은강이라는 캐릭터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빨강 풍선”은 제가 이제껏 해온 작품 중에서도 난도가 높아서, 어려운 걸 해냈다는 성취감이 드는 작품”이라고 했다.

“문 선생님 대본 안에는 정답과 해설이 다 들어있어요. 마침표 하나, 느낌표 하나에도 다 뜻이 있어서 돌아보니 오히려 캐릭터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 자체는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연합뉴스

드라마 ‘대행사’ 이보영

“성공에만 매달리는 인생 연기하면서도 안쓰러워”

최종회 시청률 16%

“꽤 많은 사람이 아인이처럼 살고 있겠죠? 현장에서 제가 혼잣말로 자주 하던 말이 ‘뭣이 중헌디’였어요. 세상의 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JTBC 드라마 ‘대행사’가 26일 최종회 시청률 16.0%(비지상과 유료가구)로 마무리됐다. 능력 있고 야망 있지만 어릴 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워커홀릭. 여성 주연 오피스물의 전형적인 캐릭터 고아인을 특별하게 만든 건 배우 이보영의 캐릭터 해석과 연기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아인과 닮은 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1(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은 이보영은 “고아인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애는 왜 이려고 살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고 밝혔다.

“즐길 줄도 모르고, 뭐가 행복한 건지도 모른 채 성공에 목매는 고아인을 보면서 안쓰러웠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으면서도 제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났죠.”

광고 대행사를 배경으로 하는 오피스 드라마 ‘대행사’는 직장 내 여성의 성공을 다룬 정치 드라마에 가깝다.

‘홍수저’에 지배당 출신인 고아인은 서로를 밀고 끌어주는 ‘한국대(국내 최고 명문대) 출신 남자’ 직원들과 대립하며 오로지 실력만으로 그룹 내 최고 자리에 오른다.

독설과 냉소를 내뿜지만, 능력 있는 직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잠재력을 끌어내는 리더십을 갖춘 캐릭터다.

이보영은 “처음 해보는 연기라서 너무 재밌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고주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수 싸움에 능한 고아인은 술한 난관을 타개하며 통쾌함을 선사하지만, 성공을 향해 내달리는 그의 모습은 불만족스러웠다.

이보영은 “시청자들을 끌어당긴 고아인의 매력은 세지 않으면서 센 척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며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사실 속이 한없이 망가져 있는 그가 짝해 보이고 공감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보영은 “예상했던 것보다 시청률이 잘 나와서 감사하고 놀랐다”고 솔직한 소감을 밝혔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연기가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용서되는 시기는 지났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시청률에 대한 부담은 사실 전혀 없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웃음) 잘 되더라도 방송 끝나고 일주일만 지나면 금세 잊히기 때문에 일회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죠.”

2002년 ‘태평양 설목차’ 광고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보영은 드라마 ‘서동요’(2005), ‘내 딸 서영이’(2012),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 ‘신의 선물-14일’(2014), ‘마더’(2018) 등 수많은 작품을 흥행시켜 대표작을 꼽기 어려운 배우이기도 하다.



이보영은 이제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지만, 그에게도 고아인처럼 약삭같이 버티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보영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일이 되게 적성에 안 맞았고, 한동안 연기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었다”고 털어놨다.

“카메라 앞에 서면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고, 현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저만 그랬겠어요?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다 비슷하죠. 고아인을 연기하면서 ‘원래 초반에는 이렇게 다 깨지면서 버티는 거구나’를 느꼈고, 이제껏 잘 버텼으니 앞으로도 잘 버티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보영이라는 배우를 대중에 알린 건 불쌍하고 안쓰러운 캐릭터들이었지만, 그에게는 늘 무게감 있고 어두운 역할만 맡게 되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이보영은 “항상 들어오던 역할이 청순한 첫사랑 역이었는데, 전 청순한 사람이 아니라서 ‘눈물 한 방울 토르르’ 연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밝은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마다 잘 맞는 옷이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배웠다”며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 스펙트럼 내에서 충분히 변주해서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다.

“자기작은 또 전문적이고요, 또 사연이 많아요. 또 부모 복 없어요. (웃음) 근데 저는 대본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연합뉴스

1인 주거 해법 찾기

광주MBC 유니버스 다큐 4부작 ‘솔로하우스’ 내달 2·16·23일 방영

1인 가구 600만 시대다. 코로나 19 이후 주거 공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MBC 유니버스 다큐멘터리 ‘솔로하우스’ 4부작은 다양한 모습의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솔로’들의 모습을 통해 1인 주거민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4부작으로 구성된 작품은 환경, 취향, 공유공간, 로컬 등 네 가지 주제로 열두 가지 이야기를 펼쳐보인다. <사진> 3월2일 밤 9시 방영되는 2부 ‘나를 표현하는 취미 하우스’는 좋아하는 영화 소품을 모아 집을 꾸민 이진수 씨의 ‘해리포터 하우스’, 3만 권의 책을 소장한 무등산 북하우스 등 개인의 취향과 취미가 모여 집이 된 ‘취미하우스’의 사례를 소개한다.

3부 ‘따로 또 같이’ 함께 만드는 솔로하우스’(9일 밤 9시)는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롭기는 싫



은’ 요즘 솔로들의 욕구가 반영된 공동 주거 공간을 소개한다. 청년 공동주택, 공공 실버 주택, 장애인, 비장애인인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 주거 등 1인 주거의 단점을 상쇄할 공동 주거 모델을 제시한다.

4부 ‘로컬에서 찾은 나만의 공간’(16일 밤 9시)은 ‘4도 3촌(나홀은 도시에서 일하고 사흘은 로컬에서 쉬는 요즘 휴양 트렌드)’ 등에 부합해 시골의 빈집이 휴양 숙박지로 탈바꿈하는 ‘유휴하우스’의 사례를 살펴본다. 또 직접 로컬로 내려와 일주일

간 살아보고 경험해보며 로컬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례 등을 소개한다.

지난 23일 방영된 1부 ‘나만의 솔로하우스를 만나다’에서는 스스로 만든 캠핑카로 자연을 찾아 나서는 캠핑 유튜버까지 등 자신만의 솔로하우스를 만든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한편 ‘솔로하우스’는 2022 KCA OTT 특화 제작지원작으로 왓차를 통해 숏폼다큐(15분) 12편 전편이 3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